

도농교류 마을전자상거래 지원 확대

익산시, 소농들에게도 추가 지원 가능해져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도농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일 익산시는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마을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농교류 사업추진 개인 및 단체의 지원과 농촌마을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마을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IT전문가 2명을 채용하고 마을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해 마을들의 유·무형자원

인터넷 홍보 및 판매 컨설팅, 전자상거래 입점 발굴 등 9개 분야에 걸쳐 250여 농가를 지원했다. 이들 농가들에게는 전자상거래 연계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이 투입돼 오픈마켓 판매 및 홍보대행 사업 등이 지원됐다. 시의 지원을 받은 11개 농가는 지난해 말 2개월 동안 농산물을 오픈마켓에 입점시켜 1억 4천만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소농들에게도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소농들의 오픈마켓 입점으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권역별 IT전문가를 보조할 IT마을 도



익산시는 도농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미를 일선 농촌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사업은 우선적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 고령농 위하여 준비

한 만큼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바란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익산=장인원 기자



군산시가 감귤과 만감류 시험재배를 농가 시설하우스에서 시작했다.

군산시, 제주감귤 시설하우스 시험 재배

군산시가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감귤과 만감류 시험재배를 농가 시설하우스에서 시작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아열대작물 재배에 대비해 감귤과 만감류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배되는 만감류는 남진해(카라향), 미니향, 한라향(세포미), 천혜향, 레드향 등 껍질이 얇은 13개 품종으로, 감귤 수확이 끝나는 1월부터 5월까지 수확된다.

올해 심겨진 묘목들은 2년 뒤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된 과실은 지역

내 로컬푸드와 소비자직거래, 현장체험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시는 시험재배에 성공할 경우 고품질의 과실 생산과 함께 도시민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군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만감류 재배를 시작한 김정직씨는 "단순 농산물 생산보다 가공이나 체험을 접목할 수 있는 만감류 재배를 결심했다"며 "수확체험, 가공체험과 함께 도시민 센터인 카페도 운영하여 6차 산업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벼 병해충 사전방제 처리제 지원 확대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지역의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병해충 사전방제용 육묘상처리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빈도와 방

제비용 증가, 고령화로 인한 방제인력 부족 등으로 농민들의 지원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가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총 14억 원 규모로

약제를 지원한다.

이는 육묘상처리제 12만5,000여 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역 전체 벼 재배면적(1만5,932ha)의 60%를 방제할 수 있다.

육묘상처리제는 발병 후 방제가 불가능한 흰잎마름병,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과 더불어 벼물벼룩이나 애벌레 등과 같은 해충 방제가 가능하며

지역농협이 총 20여종 가운데 농업인이 직접 선정한 약제를 공급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육묘상처리제는 1회 사용으로 병해충 방제와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큰 방제법이며 최근 병해충 발생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지도로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원 기자

군산시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올해 4월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법인전입금 또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사비로 부담해왔다.

법정보수교육비를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김정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교육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지원을 넘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교육비 부담 감소를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는 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담당부서에 분기별(4·7·10·12월) 1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해당 월 25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박철웅 익산시부시장, 재해예방 현장행정 나서

박철웅 익산시부시장은 2일 만경강 주변 재해위험지구인 목천포 천과 유천지구 배수펌프장 2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19일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기간을 맞아 실시된 것으로 시설물점검 대상인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와 근무상황 실태 및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박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교육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대진단 및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재해예방에 내실 있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익산=장인원 기자



박철웅 익산시부시장이 목천포 천과 유천지구 배수펌프장 현장점검에 나섰다.

익산시 '2035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모집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2035 익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할 시민계획단을 3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사업장 근무자와 대학생

도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시민계획단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도시 미래상과 도시기본구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은 전문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2035 익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시는 참여 신청을 받아 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자체심사 후 도시·주택, 교통·철도·역세권, 문화·관광 등 5개 분야에 총 75명을 선정하며 결과는 4월 말경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도시개발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계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인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 상반기 고용상황 대비 재정집행 추진

군산시가 상반기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신속집행 대상금액이 크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점검을 추진했다.

실무점검에서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과 집행부진 원인분석 및 실적제고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신속집행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시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신속집행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확대 부문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억 7,8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추진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공동체·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익산시는 2일 부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00여명이 참석한 상반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남호 안전전문강사가 사업장별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제시해 교육 이

해도를 높였으며 근로자를 또한 교육에 임했다.

9개 사업장에 22명이, 공공근로사업은 17개 사업장에 72명이 6월·5월 말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의 근로소득 창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장인원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